

고속도로 화장실 '유리 천장' 전수 조사 결과, '유사문제 없음'으로 나타났습니다

< 관련 보도 (서울신문, 3.6) >

- ◆ 용변 보는 내 모습이 흰히... “최근 추세” 고속도로 화장실 ‘경악’
- 밤 시간대 수동휴게소 화장실 유리 천장에 칸 내부가 비추어 불편 초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휴게소 화장실 천장에 유리 소재를 사용하여 야간에 화장실 내부가 비치는 문제*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법인을 통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.

* 화장실에 햇빛이 드는 친환경적 요소를 적용한 것으로 낮에는 문제없으나 밤 시간대 천장 유리에 반사되는 현상 발생

○ 조사 결과, 235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천장에 유리 소재가 사용된 화장실은 37개소로 확인(재정고속도로 33, 민자고속도로 4)되었으며, 칸 내부가 비치는 화장실은 문제가 된 수동 휴게소 2개소(상행, 하행)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* 35개소는 유리 천장이 화장실 출입구에 있는 등 칸 내부 반사 문제 미발생

○ 아울러, 수동 휴게소는 3월 6일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여 내부 모습이 반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.

□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 편의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문수	(044-201-3389)
		담당자	서기관	박정현	(044-201-3900)
			주무관	이혜성	(044-201-4576)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관리과	책임자	과 장	한성수	(044-201-3909)
		담당자	사무관	안일찬	(044-201-3912)
			주무관	임정훈	(044-201-3920)

참고

휴게소 조사 사례 및 수동휴게소 조치 사진

□ 휴게소 조사 사례

① 옥계 휴게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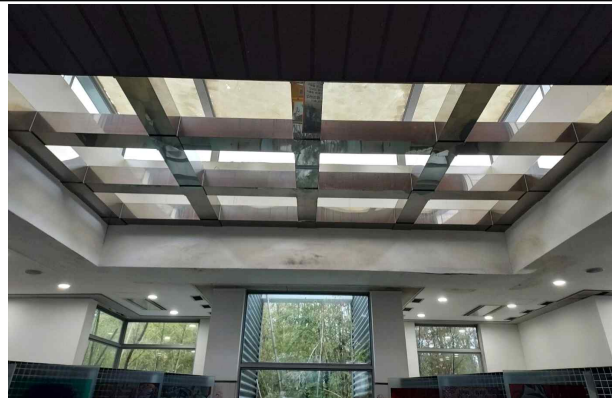


화장실 유리천장



대변기 칸에서 비침 여부 확인 (문 닫음)

② 구정(속초) 휴게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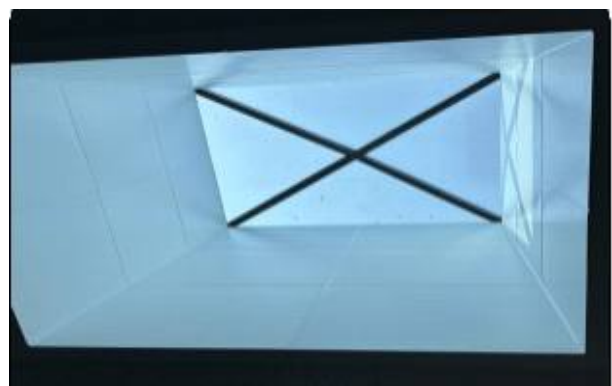
화장실 유리천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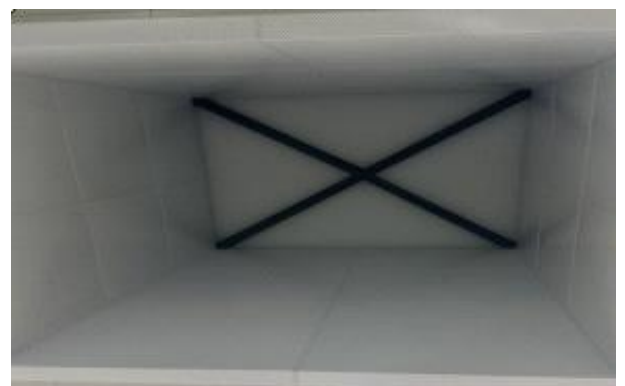
대변기 칸에서 비침 여부 확인 (문 닫음)

※ 대변기 칸 내부에서 유리 천장의 비침 확인 결과 문제 없음을 확인

□ 수동 휴게소 조치 사진



조치 전



조치 후